

어문연구 제6권 1996년 2월

『潮騷』의 自然觀에 關한 一考察[†]
 - 三島由紀夫 作品을 중심으로 -

張 晋 洙*

<目 次>

I. 序 論	2) 동식물의 표상
II. 本 論	3. 자연관
1. 자연환경	1) 대자연
1) 시간적 자연	2) 인간과 환경
2) 공간적 자연	III. 結 論
2. 자연의 표상	참고문헌
1) 기상 표상	

1. 序 論

本稿는 三島由紀夫의 작품『潮騷』속에서 나타난 日本의 海洋 自然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論旨로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金閣寺』에 나타난 山寺의 自然觀도 살펴보고 관찰하고자 한다. 자연관이란 자연에 대한 관념이나 견해를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은 거대한 천체의 별들로부터 시작하여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 등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워즈워드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이 지각하는 물리적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는 인간이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상상력은 자연에서 능력을 주고 조절시키며 인간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며, 이와같이 상상력은 자연을 창조하고 해설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창조

† 本論文은 1995년도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掲載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이 학술연구비로 전반부만을 掲載함.

* 韓國海洋大學校 副教授 日文學

의 활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

三島由紀夫는 인생을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였고, 일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四季로서 일련의 주기로 나누었지만, 작품 『潮騒』에서는 그 중 봄, 여름 二季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 자연의 순환적인 과정을 성장, 성숙, 쇠퇴, 죽음 그리고 소생 등 유기적으로 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모든 변화의 이치를 자연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가는 自然의 웅장함 앞에서 인간의 미력함을 느끼고, 自然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며, 특히 바다를 敬畏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작품 『潮騒』를 통하여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 주위의 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 위에 인간 생활의 병폐를 치료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대와 같이 공해와 오염 물질 속에 빠져있는 自然을 파괴하는 自然觀을 현대 日本人의 의식속에 주입시켜 大自然의 사랑으로 생활화시킨 면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주로 海洋 自然을 소재로 하였으며, 자연의 美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自然 조화에 따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本稿에서 (1) 自然環境 (2) 自然의 表象 (3) 自然觀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自然環境

1) 時間的 自然

(1) 季節의 歲時

우선 이 작품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초봄, 봄, 늦봄, 초여름, 여름, 늦여름으로 나눌수 있으며, 月別로 나누어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으로, 계절로 치자면 봄과 여름(春夏)의 二季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季節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묘사를 시의적절하게 문장 속에 가미시키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삽입시켜서 작품 전체에 自然에 대한 思想이 넘

1) 李善榮 編,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4, p. 69.

쳐흐르도록 묘사하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丁度彼の靜かな幸福が靜かな自然との連關のなかで確かめられるやうに、今の彼の内部は自然のこの狂躁に、いひしれぬ親しみを感じるのであつた。」²⁾
 (마침 그의 조용한 행복이 조용한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확인되듯이 지금의 그의 내부는 자연의 이 광조에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自然の聯關の片端に身を置けば、自然の正確な秩序がわからないはずはなかつた。」³⁾
 (자연의 관련 속에 몸을 두면 자연의 정확한 질서를 못 깨달을리 없었다.)

특히 三島는 배경으로 나타난 자연 환경에의 풍경 묘사에서 관능적인 매혹을 느낀다고 하였고, 다른 작가가 그려낸 소설속의 Love Scen(ラブ-シーン)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 用例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私は風景に官能的な魅惑を感じた。今でも私の小説の中の風景描寫は、他の作家の小説の中のラブ-シーンと、同等の重みを持つてゐると云つてよい。」⁴⁾

그는 「歌島」라는 섬을 중심으로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하였고, 약 6개월간의 二季의 歲時와 자연에 대한 문학적인 정서, 그리고 계절적인 연관을 통하여 자연의 풍부한 아름다움으로 문학적인 표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만남과 헤어짐,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의 반복적인 순환의 질서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작품 속의 내용은 二季의 요소와 孤島의 생활상인 어촌에서의 직업적인 어부의 일상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청춘남녀의 사랑과 인간의 삶을

2) 三島由紀夫, 日本文學全集 68(三島由紀夫集)『潮騒』, 新潮社, 1965. p. 231.

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8.

4) 新潮社(編), 『三島由紀夫全集』30(評論), 「私の遍歴時代」, p. 469.

구성해 내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若者は彼をとりまくこの豊饒な自然と、彼自身との無上の調和を感じた。彼の深く吸ふ息は、自然をつくりなす目に見えぬものの一部が、若者の體の深みにまで滲み入るやうに思はれ、」⁵⁾

(젊은이는 그를 에워싼 이 풍요한 자연과 그 자신과의 이 이상 더 없는 조화를 느꼈다. 그가 깊이 들이쉬는 호흡은 자연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일부분이 자기의 체내 깊숙이 스며들 듯 느껴졌으며,)

季節의 속절없는 변화는 세월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와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색채 변화로 잘 나타나 있다. 동경하는 마음은 자연현상인 四季의 규칙적인 변화에 따라 긴밀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계절의 어김없는 변화와 순환,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른 계절적인 교대로 변화와 자연적인 이동을 문학적인 정서로 나타내려 하였다. 즉, 인간이 들이쉬는 호흡조차 자연을 창조한 신의 영험에 달려 있으며, 삼라만상이 신의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프라이는 자연을 순환적인 상징으로 보통 네 개의 주된 양상으로 나누고 있다. 즉, 일년은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의 네 시기(아침, 정오, 저녁, 밤), 물의 주기의 네 개의 측면(비, 샘, 강, 바다나 눈), 인생의 네 시기(청년, 장년, 노년, 죽음)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⁶⁾.

반면 작가는 작품 『潮騒』에서 時空性으로 歲時를 3월부터 8월 사이의 二季로 끝내고 있다.

그렇지만 三島の 다른 작품 『金閣寺』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四季가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작품 『金閣寺』의 四季도 조명하여 보고 관찰하여 山寺의 계절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이어서 먼저 三島由紀夫의 『潮騒』와 『金閣寺』의 작품 속에서 문학적 서사로 기술된 문장을 필자는 계절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17.

6) N 프라이,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95, p. 223.

① 초봄

초봄을 흔히 청춘, 첫사랑의 의미를 지닌 계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따사로운 희망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흔히 남녀의 만남과 사랑은 주로 초봄에 이루어진다고들 한다. 또한 초봄에는 긴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또, 계곡에서는 얼음이 녹아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도 섬에서 듣는 해변가의 찬바람 소리는 아직 춥게만 느껴지는 계절이다.

이 작품에서 「歌島」섬을 배경으로 하여 섬과 바다 그리고 이른 봄의 歲時가 문학적인 表象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春の彼岸にひらく檜島賊の漁期を前に、すでにをはりに近づいてみた。」⁷⁾

(춘분 전후에 시작되는 오징어잡이 낚시 어기를 앞두고 이미 마지막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右方の斷崖高く燈臺がすでに光り納めてゐる。早春の褐色の木マの下に、伊良湖水道の波が上げる飛沫は、雲つた朝景色のなかの鮮やかな白である。」⁸⁾

(오른쪽 절벽 높이 등대는 이미 빛을 거두고 있다. 이른봄, 갈색 나무들 아래 이라꼬 수로의 파도가 솟구치는 비말은, 흐린 새벽 풍경 속에 선명한 흰살을 드러내 주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寒い西風はかなり強かつたが、少女は作業にほつた顔をそれにさらし、……若者はわざわざ、少女の前をとほつた。子供がめづらしいものを見るやうに、正面に立つてまともに少女を見た。」⁹⁾

(차디찬 서풍은 어지간히 세웠으나 이마엔 땀이 맺혀져 있었고 뺨은 붉으스레 물들여져 있었다.…… 젊은이는 일부러 소녀 앞으로 쭉뚱하게 걸어들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진기한 물건이라도 바라보듯 정면에 서서 똑바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0.

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0.

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7.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早春の空が、丁度きらめいてゐる硝子窓のやうに内部を見せないが、内部には火と破滅を隠してゐることを信じようとした。」¹⁰⁾
 (이 이른 봄의 하늘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창처럼 내부를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에는 불과 파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려 했다.)

초봄의 「歌島」섬의 아직 추운 날씨에 파도가 솟구치는 해변가의 정경을 잘 그려보여주고 있으며, 절기상 초봄에 남녀가 처음 만나 첫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또 작품 『金閣寺』에서는 초봄에 하늘이 맑고 나무 사이로 새어들어 오는 햇빛의 희롱하는 듯한 정경을 따스하게 잘 묘사해 내고 있다. 초봄의 정경이 해양의 「歌島」섬과 山寺에서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다.

② 봄(春)

초봄을 지나 보낸 후 찾아드는 봄의 시간적인 면을 살펴보자. 흔히 봄은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고, 온갖 새 잎이 피어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봄은 꽃, 나비, 봄바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또 벌나비가 날고, 만산의 새들이 우는 소리는 서로 짝을 찾기 위해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랑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歌島」에서의 봄은 여느 육지의 봄과는 달리 모든 면에서 바다와 연계되어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ほころびかけてゐた島の乏しいさくらのつぼみは、このおかげでこのらず落ちてしまふだらうと思はれた。前日、時ならぬ濕つた風が帆布にまとはりつき、ふしぎな夕焼が空をおほつた。」¹¹⁾
 (봄오리가 맺기 시작한 섬의 벚꽃은 이 바람때문에 모조리 떨어지거나 않을까 염려되었다. 전날 때아닌 눅눅한 바람이 돛폭에 감겨 들고 기묘한 저녁놀이 하늘을 뒤덮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裏の家の貧しいつつじの花が、下方の海の色を葉かげに透かしてゐるだけであ

1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32.

11)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228.

る。」¹²⁾

(뒷집 진달래가 저 아래 바닷빛을 그 가장귀 앞 사이에 내 비쳐 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うらかな春の午後も、よくかりこまれたしばふもここにはなかつた。しかしこの荒涼とした自然は、春の午さがりのしばふよりも、もつと私の心に媚び、私の存在に親密なものであつた。」¹³⁾

(화창한 봄날 오후도 잘 손질된 잔디도 여기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 황량한 자연은 봄날 오후의 잔디보다도 더욱 나에게 교태를 부려 나라는 존재에 친밀해졌다.)

특히 봄은 애욕이나 즐거움을 안겨준다. 또 봄은 자연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반복성과 인간 세계와의 무상한 변화와 꽃이 피고 떨어지는 순환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상상의 Image(이미지)를 펼치도록 해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봄은 봄꽃, 나비, 새소리, 풀벌레, 봄바람 등의 자연과 깊이 관계를 맺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섬에 봄이 오면 벚꽃이 바람 때문에 落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도서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작품 『金閣寺』에서는 절이 한가하여 화창한 봄날 잔디 위에서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해양에서의 봄이나 山寺의 봄도 역시 한가한 모습을 잘 표출시키려 하였다.

③ 늦봄

늦봄은 애욕, 즐거움 같은 기분이 나게 만들어 주는 계절이기도 하며, 인간 세계의 경쾌함과 감동 의욕을 갖게 하는 계절이다. 또한 관능적인 황홀한 사랑의 체험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며, 바로 늦봄을 배경으로 사람을 추상적인 동경속으로 빠지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늦은 봄의 用例를 들어 보자.

「日のささない家であつたが、晩春ののどかな空は、隣家の土蔵の屋根に區切られて仰がれた。」¹⁴⁾

(별이 들지 않는 집이었지만, 늦봄 한가로운 하늘이 이웃집 광 너머로 바라보였다.)

12)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264.

13) 三島由紀夫, 『金閣寺』, 前掲書, p. 439

14)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3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とかうするうちに春は終りかけてゐた。木々は緑をまし、東側の岩壁に群生して
ある濱木綿の花期にはまだ早かつたが、島のそこかしこがさまざまな花で彩られ
た。」¹⁵⁾

(이러구러하는 동안에 봄은 어느새 막바지 고비에 이르고 있었다. 수목들은 나뉘이
녹색으로 질어졌다. 동쪽 암벽에 무리지어 피는 文珠蘭을 비롯해, 계절로는 좀 이르
지만 섬은 여러가지 꽃들로 장식되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晩春の午後には、明るさと空気のものうさのあまりに、こんな事が起りがちであ
る。つまり私が二重になり、私の分身があらかじめ私の行爲を模倣し、いざ私が決
行するときには見えない私自身の姿を、ありありと見せてくれると謂つた事が。」¹⁶⁾

(늦은 봄날 오후에는 밝음과 공기의 나른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다. 즉 내
가 이중으로 겹쳐져 나의 분신이 사전에 내 행위를 모방하여 막상 내가 결행할 때는
보이지 않게 될 나 자신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여 준다든가 하는 일이.)

화창한 봄날 늦은 오후의 한가한 섬 마을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산책을 하거
나 줄음을 이겨내려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늦은 봄에 수목 빛이
질어가는 모습과 문주란과 같은 야생꽃들이 피어 있는 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金閣寺』에서의 산사의 늦봄 정경은 한가하고 조
용한 가운데 주인공이 어떠한 결심을 결행하려는 의지를 표현해 내고 있다.

④ 초여름

초여름은 바다와 강, 푸른 산이나 新綠의 초목과 흰구름, 여름 철새, 푸른 전
원 등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작품 『潮騒』에서 사나이들은 바다로
나가서 일상업무로 고기를 잡거나 기범선을 타고 세계를 마음껏 누비며 다닌
다. 또 여자들은 물 속에 들어가 해초를 따고, 조개, 해삼, 소라 등을 잡으러 물
길질을 한다.

초여름을 그린 用例를 들어 보자.

1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0.

16)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7.

「男たちは漁へ出る。機帆船に乗つてさまざまな港へ荷を運ぶ。さういふ世界の廣がりとは縁がない女たちは、飯を焚き、……夏が來ると水に潛いて、深い海の底へと下りてゆく。」¹⁷⁾

(사나이들은 바다에 나간다. 기범선을 타고 여러 항구에 짐을 부린다. 그러한 넓은 세계와는 인연이 없는 여자들은 밥을 짓고, …… 여름이 오면 물 속에 들어가 해녀 노릇을 한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いつのまにかその陽氣で練達な海女たちの一人に、數へられてゐる自分を發見しておどろくのであつた。歌島の海女は六月七月にもつともはたらいた。」¹⁸⁾
(어느새 그 명랑하고 숙달된 해녀의 한 사람 속에 끼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것이었다. 우다지마의 해녀는 유월과 칠월에 가장 많이 일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 用例를 들어 보자.

「授業をなほざりにしながら、私は晩春から初夏にかけての美しい日マを、金のかからぬ寺マや社の見物にすごした。足の及ぶかぎり歩いたのである。」¹⁹⁾
(수업을 태만히 하면서 나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아름다운 나날을 돈이 안드는 절이나 신사를 구경하면서 소모했다. 발길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녔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こんなときには青春(この言葉を俺はひどく正直に使ふのだが)の俺の身の上に、信ずべからざる事件が起つた。寺の檀家の子で、その美貌が名高く、神戸の女學校を出てゐる裕福な娘が、ふとしたことから、俺に愛を打明けた。しばらく俺は自分の耳を信じてゐ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²⁰⁾
(이런 때에 청춘<이 말을 나는 매우 정직하게 쓰고 있지만>인 내 신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 절의 단가의 딸로 그 미모 때문에 이름이 났고 고오베(神戸)의 여학교를 나온 유복한 처녀가 우연한 일로 내게 사랑을 고백한 거야, 잠시동안 나는 내 귀를 믿을수가 없었지.)

1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30.

1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19)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6.

2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67

작품 『潮騒』에서 섬의 초여름에는 사람들은 생활터전에서 작업에 열중하느라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작품 『金閣寺』에서 보면 山寺의 초여름에 주인공은 한적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山寺나 神社를 찾아다니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다.

또 초여름은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한 반면 인생으로 치면 청춘이고, 사랑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감정도 정열적으로 느끼도록 서로 확인하는 계절이다.

⑤ 여름

여름의 表象은 사계절 중 가장 덥고, 원숙하게 잘 자라며, 인간이 자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태양처럼 밝고, 뜨겁고 무성한 숲이 우거지는 등의 정경을 표상하고 있다.

또 자연의 세계에서는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천둥, 번개, 태풍, 홍수, 가뭄 등 自然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 여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의 用例를 들어 보자.

「沖なわが、その半徑内に入る颱風の襲來が報ぜられた。一刻も早く出帆して、颱風の圏外へのがれるために、船は早朝に港を出た。」²¹⁾
(오기나와가 그 반경 안에 들어간 태풍 경보가 알려졌다. 한시바빠 출범하여 태풍권 밖으로 도피하기 위해 배는 아침 일찍 항구를 떠났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運天は沖なわ島の北端にあつて、戦時中米軍が最初に上陸した地點である。……港に沿うた廣いコンクリートの舗道には、亞熱帯の夏の日にかがやいて、數へ切れぬほどの車が往來してゐた。」²²⁾
(운텐은 오기나와 섬에 있는데, 전시에 미군이 최초로 상륙한 지점이다.……해안을 끼고 뻗어나간 넓은 콘크리트 포도 위에는 아열대의 여름 태양이 쏟아지고, 수없는 자동차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2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2.

2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1.

「小さな夏の花を見て、それが朝露に濡れておぼろな光りを放つてゐるやうに見えるとき、金閣のやうに美しい、と私は思った。また、雲が山のむかうに立ちほだかり、雷を含んで暗澹としたその縁だけを、金色にかがやかせてゐるのを見るときも、こんな壮大きさが金閣を思はせた。」²³⁾

(자그마한 여름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회미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는 긴까꾸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또 천둥 번개를 안고 있는 시커먼 구름이 산너머 하늘에 잔뜩 모여 있고, 그 어두운 가장자리만을 금빛으로 빛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웅장함이 긴까꾸를 생각해 했다.)

작품 『潮騒』에는 한국의 6·25 전쟁 때문에 오끼나와 섬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전쟁으로 인한 열기로 분주하고, 더욱이나 여름 태양이 더위를 뺏어 열기가 더해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전쟁은 격동기의 세계 질서의 재편과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충격과 시련을 주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주고 있다.

또 작품 『潮騒』에서 主人公은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천재 때문에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파괴와 시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작품 『金閣寺』에서는 격렬한 태풍이 인간의 심리를 격앙하게 만들어 여름의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천둥, 번개, 시커먼 구름이 한층 더 「金閣寺」를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고, 여름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여름은 「歌島」 섬이나 山寺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지에 충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늦여름

늦여름의 대표적인 정경은 흰구름, 늦여름의 따가운 햇빛 그리고 서늘한 밤 공기 같은 것들이다.

늦여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동화되고 일치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활력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을 인간적 삶에서의 걱정 of 계절이라고 말하며 모든 삼라만상이 격동하고 있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23)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13.

늦여름에 대해 묘사한 用例를 들어 보자.

「村へ下りてゆく道端の家では、家の前にむしろを激き、胡麻、小豆、大豆などを干してゐた。胡麻の青い小さな種子は、晩夏の日を浴びて、新鮮な色をした蓆の粗い目の上に、ひとつひとつ可愛らしい紡錘形の影を添へてゐた。」²⁴⁾
(마을로 내려가는 길가 집에서는 집 앞에 넓은 명석을 깔고, 참깨·콩·팥 등을 말리고 있었다. 참깨의 그 푸른 조그마한 씨앗들은 늦여름 햇빛을 받아 신선한 빛깔을 한 명석 위에 하나하나 귀여운 반추형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神社の裏手から松林の道へのぼつた二人は、夜の涼しさを今さらに味はつた。すつかり暮れてゐるのにひぐらしが啼いてゐる。」²⁵⁾
(신사 뒷길로 해서 송림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서늘한 밤공기를 새삼스럽게 맞보았다. 해도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은 데도 쓰르라미가 울고 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晩夏のしんとした日光が、究竟頂の屋根に金箔を貼り、直下にふりそそぐ光りは、金閣の内部を夜のやうな闇で充たした。……や가て 焼夷彈の火に焼かれるその運命は、私たちの運命にすり寄つて來た。金閣はあるひは私たちより先に滅びるかもしれぬのだ。すると金閣は私たちと同じ生を生きてゐるやうに思はれた。」²⁶⁾
(늦여름의 눈부신 햇빛이 구경정 지붕에 금박을 입히고,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빛은 긴까꾸 내부를 밤과 같은 어둠으로 가득 채웠다.……멀지않아 소이탄에 불타버릴 그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에 슬며시 다가왔다. 긴까꾸는 어쩌면 우리들보다 먼저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긴까꾸는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작품 『潮騒』에서 참깨, 콩, 팥등을 명석 위에 깔아놓고, 늦여름 햇볕에 말리는 모습은 금방 영상으로 본듯한 한가한 시골의 풍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특히 「金閣寺」의 늦은 여름 밤은 그 정박감으로 주인공의 파멸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 하여서 얼마 있지않아 오랫동안 전통과 웅장함을 보여 주었던 「金

2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9.

2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94.

26)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30.

「金閣寺」절이 곧 불타버릴 운명에 놓여 있음을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섬의 늦여름은 사랑이나 열매를 곧 맺게 해주는 희망을 갖게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金閣寺」에서의 늦여름은 어떠한 결행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여겨진다.

⑦ 가을

작품 『潮騒』에서는 시간적으로 봄, 여름으로 계절이 끝난다. 그러므로 작품 「金閣寺」에서 가을, 겨울의 정취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가을은 결실, 풍요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는 계절이라고 흔히 말하며, 단풍, 낙엽, 서리, 가을 바람, 밝은 달 등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슬픔, 추억, 그리움이 생각나고, 또 외로운 인생의 늙음, 고독, 죽음 등의 슬프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밝은 달밤, 가을 바람 속에서 구슬픈게 우는 풀벌레 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유난히 달과 별이 밝고, 쓰르라미나 풀벌레가 애절하게 우는 가을 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사람이나 떠나온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한다. 이와같이 가을은 우리로 하여금 애절한 비감과 향수 등의 서정을 갖게 만드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작품 「金閣寺」에서 가을의 用例를 들어 보자.

「十月, 十一月, 十二月の期間, 夜の十一時から朝の十時ごろまで, 規則正しく, 保津川から上る霧がこの地方を々なく包んだ。……京都を發つときあのやうにいっききとしてゐた私の心は, 今また死者たちの追憶へ導かれた。有爲子や父や鶴川の思ひ出は, 云ふに云はれぬやさしさを私の裡に呼びさまし, 私は死者をしかり人間として愛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疑はれた。」²⁷⁾

(10월, 11월, 12월은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경까지 거의 규칙적으로 호즈강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이 지방을 구석구석까지 감싼다.……교오포를 출발할 때 그렇게도 들떠 있던 내 마음은 이제 다시 죽은 사람들의 추억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우이 꼬와 아버지, 그리고 쓰루가와에 대한 추억은 말할 수 없는 다정함을 내 내부에서 불러 일으켜, 나는 죽은 자만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또 작품 「金閣寺」에서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27)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32.

「晩秋の燒闌をさえざえととつんざいて、裏庭の鶏鳴が白くきこえた。……夜明け前の冷氣のなかに、はねつけるやうなはだざはりをしてゐた。」²⁸⁾
 (늦가을 새벽의 어둠 속을 냉랭하게 깨뜨리고 뒷마당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녘 냉기 속에서 반항하는 것처럼 섬뜩한 감촉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人生은 죽음이 있고, 無常하게 슬픔만 남기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이 계절에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적막과 죽음의 不可思議만이 남고 말리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가을은 흔히 낙엽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으로 귀의하게 된다는 서글픔을 갖게되는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계절이다. 또한, 가을은 결실과 완성이 성취되는 계절이고, 풍요가 넘치는 계절이기도 하다.

⑧ 겨울

흔히 겨울은 찬바람, 눈, 얼음을 표상하고 쌀쌀한 여인, 비정한 사람, 고통받는 죄인을 상상한다. 또한, 겨울은 흰 눈이 내리는 계절이다. 새하얀 눈은 청결하고, 깨끗한 정경으로 고결함과 순수한 면을 나타낸다. 흰눈이 내리면 모든 세상의 물건이 하얀 상태로 변화하여 平和와 淸淨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이고, 인간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는것 같은 느낌을 갖게된다. 더럽고 추한 것도 아름답고 예쁜 것도 모두 변화하여 하얀 은세계로 바뀌어진다. 눈이 내릴 때는 누구나 어렸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함박눈을 받아 먹었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또 눈이 내리면 산이나 숲속에 먹을 것이 없어 온갖 동물과 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인가로 내려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 用例를 들어 보자.

「戦後最初の冬になつた。或る金曜の晩から雪が降りはじめ、土曜にも降りつづけた。……雪は暢達な速度で降つた。子供のころよくさうしたものだが、私は今も天へむかつて大きく口をあげた。」²⁹⁾
 (전후 첫번째 겨울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토요일에도 계속 내렸다.…… 눈은 평평 쏟아졌다. 어릴 때 곧잘 그렇게 했듯이 나는 지금도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렸다.)

28)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61.

29)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50.

또 작품 『金閣寺』에서의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事實、立體的な金閣は、雪のおかげで、何事をも挑みかけない平面的な金閣、畫中の金閣になつてゐた。……をちこちの松に積む雪は壯麗だつた。」³⁰⁾
 (사실 입체적인 긴까꾸는 눈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평면적인 긴까꾸, 그림 속의 긴까꾸로 되어 있었다.……여기저기의 소나무에 쌓인 눈은 장관이었다.)

작품 『金閣寺』에서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第一に、寺の生活が樂になつたのである。金閣がいつれ焼けると思ふと、耐へがたい物事も耐へやすくなつた。……自然とすら私は 和解した。」³¹⁾
 (첫째로 절에서의 생활이 마음 편해진 것이다. 긴까꾸가 멀지않아 타버린다고 생각하면 참기 어려운 일도 참기가 수월해졌다.……자연과도 나는 화해했다.)

작품 『金閣寺』에서 주인공은 눈이 쌓인 「金閣寺」 절이 더욱 장관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장차 멀지않아서 불태워 버리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金閣寺」의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인공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망각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주인공이 「金閣寺」 절에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고된 생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 비참함, 고독과 어려움을 잊고 싶어 하였을 것이다. 흰 눈이 내린다는 정서는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현실 세계의 비참함을 눈 속에 묻어버리고, 세상을 정화시켜 맑고 깨끗한 흰 눈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작품 『潮騒』와 『金閣寺』의 자연관을 살펴 보았다. 봄은 첫사랑과 시련이 있었고, 여름은 원숙하고 활기차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약진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곡식을 수확하고 풍요한 가운데 죽음과 서글픔이 있고, 人生無常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겨울은 모습을 감추고 자연의 적막 속으로 파묻히지만 곧 새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리라는 기대를 부풀게 하는四季에 대한 자연의 순환을 깨닫게 해준다.

3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51.

31)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5.

2) 空間的 自然

(1) 萬象 및 風物

작품 『潮騒』에 그려진 풍물, 四時萬象, 구름, 달, 꽃 자연현상의 변화 등은 그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 자체가 자연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알게해 주는 것이다. 또 자연에 대한 무서움의 관념은 사라지고,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는 감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가깝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 속에 동화되어 침체되고 무위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려는 자연관이 잘 나타나 있다. 작품 『潮騒』에서는 오로지 자연에 깊이 몰입하여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자연, 또는 친근하게 여기는 자연이라는 주인공의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 『潮騒』 속에 나타난 자연 묘사를 통해 자연을 친근하게 함으로써 그 자연의 敍景美를 찾아내어 서정을 매개체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① 歌島 섬

작품 『潮騒』 내용의 발단은 이 섬에서 시작되고 무대 설정 역시 이 「歌島」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섬은 천혜의 고도로 자연과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등대가 있고 해변가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로 일을 하거나 여인들은 바다에서 해삼 조개등을 따는 일로 생활하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歌島は人口千四百, 周圍一理に充たない小島である。」³²⁾

(歌島는 인구 천 사백, 그 둘레는 십 리도 못되는 작은 섬이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島に生れこの島に育つて, 何ものよりも島を愛して來た若者が,」³³⁾

(歌島 이 섬에서 태어나고 이 섬에서 자라나 누구보다도 섬을 사랑해 온 新治가.)

「歌島」를 바다 가운데 낙원처럼 신비스러운 섬으로 묘사했고, 끝없는 자연

3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7.

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歌島」사람들은 이곳의 自然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 三島由紀夫가 실재의 섬 「新島」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며 신비스러운 섬이 주무대가 되어 있으며, 낭만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② 등대

등대는 「歌島」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곳이다. 이 등대 내부를보면 螺旋形 층계를 올라 맨 꼭대기의 고독한 등근 방안에 이 등대의 光源이 고요히 놓여 있다.

방은 나무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오백 와트의 촉광으로 불빛을 확대시키는 두꺼운 렌즈가 천천히 돌고 있는 곳이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挑めのもつとも美しいもう一つの場所は、島の東山の頂きに近い燈臺である。燈臺の立つてゐる斷崖の下には、伊良湖水道の海流の響きが絶えなかつた。伊勢海と太平洋をつなぐこのけふさくな海門は、風のある日には、いくつもの渦を卷いた。水道を隔てて、渥美半島の端が迫つてをり、その石の多い荒涼とした波打際に、伊良湖崎の小さな無人の燈臺が立つてゐた。」³⁴⁾

(전망도 가장 아름다운 또 한 군데 장소는 섬의 東山 꼭대기에 가까운 등대이다. 이 등대가 서 있는 절벽 아래에는 伊良湖 水路의 해류 소리가 끊임없다. 伊勢 바다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협소한 바다 문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온통 소용돌이쳤다. 수로를 격하여 아쓰미 반도의 끝이 다가와 있고, 돌이 많은 황량한 바닷가에 伊良湖崎의 조그만 무인 등대가 서 있다.)

이 등대는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우연히 만나 사랑을 속삭인 곳이다. 또 두사람이 결혼을 약속 받았을 때, 찾아와 미래를 설계한 곳이다.

이 두사람이 등대의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며 살도록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등대처럼 「歌島」섬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솟아 오르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③ 八代 神社

이 神社는 아주 신비한 환상의 장소로서 생각하게 만들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위험한 사태를 막아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그 신비스러움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3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그用例를 들어 보자.

「二百段の石段を昇つて、一雙の石の唐獅子に戍られた島居のところで見返へると、……もし海難に遭つて救はれれば、何よりも先に、ここの社に奉納金を捧げるのであつた。」³⁵⁾

(이백 개의 돌층계를 올라 한 쌍의 돌 사자가 있는 島居 앞에서 바라보면, …… 간혹 풍랑을 만나 살아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神社에다 봉납금을 바치는 것이었다.)

또 다른用例를 들어 보자.

「八代神社には六十六面の銅鏡の寶があつた。八世紀頃の葡萄鏡もあれば、日本に十五六面しかない六朝時代の鏡のコビイもあつた。」³⁶⁾

(八代 神社에는 육십육면의 銅鏡 보물이 있는가 하면, 또 팔세기경의 葡萄鏡도 있으며, 日本에 십오, 육개 밖에 없는 六朝시대의 거울 모조품도 있다.)

또 다른用例를 들어 보자.

「鏡の裏面に彫られた鹿やりすたちは、遠い昔、波斯の森のなかから、永い陸路や、八重の潮路をたどつて、世界の半ばを族して來て、今この島に、住みならへてゐるのであつた。」³⁷⁾

(거울 뒷면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들은 아득한 옛날 페르샤 숲속으로부터 긴긴 육로와 바닷길을 거쳐, 거의 지구의 반이나 되는 여행길 끝에 이 섬에까지 와서는 고이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神社를 더욱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곳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위협한 사태로부터 막아주도록 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섬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신에게 호소하는 聖所로 묘사하여 그 신비로움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또 八代神社의 부적은 항해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自然과 비교했을 때의 인간의 약하고 부족함을 무엇으론가 의지해 보도록 하고, 채워보려

3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는 마음을 심리적으로 보상 받도록 해주려 하고 있다.

④ 觀的哨(초소)

작품 『潮騒』에서 觀的哨를 나타낸 것은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사랑의 경우도 전쟁과 같이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남겨진 초소는 新治와 初江이 서로 마음을 엿보고 염탐하는 장소로 등장시킨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松林の砂地のかなたに、三階建の鐵筋コンクリートの觀的哨が見えだした。この白い廢墟は、周圍の人氣のない自然の靜寂の中に妖しく見えた。伊良湖崎のむかう側の小中山試射場から、射出される試射砲の着弾點を、二階のバルコニーで雙眼鏡を目にあててゐる兵が確認する。」³⁸⁾

(송림 저쪽에 삼층집 철근 콘크리트의 초소가 보였다. 그 새하얀 폐허는 주위의 인기척 없는 자연의 정적 속에서 괴상하게 보였다. 伊色湖 수로 저쪽 小中山 試射場에서 쏘아댄 시사포의 착탄점을 이층 발코ニー에 서서 쌍안경을 눈에 대고 있는 병사가 확인한다.)

그래서 두사람은 서로 이 觀的哨에서 상대의 마음을 엿보았다. 그리고나서 사랑의 시사포를 쏘아 착탄점이 상대의 마음 속을 정확히 맞힌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두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⑤ 辯天押

조그만 동굴 입구가 있고 삼층 동굴이 해변가를 관통하고 있다. 동쪽 해안으로부터 밀려든 물결이 상하로 통하는 깊은 갯도 밑바닥에 이어져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押の西側の岸は、石灰石の岩ばかりで、それをつたつてゆくと、歌島のもつとも神秘的な場所の一つである岩穴の入口にたどりついた。」³⁹⁾

(해변가의 서쪽 海岸은 석회암 바위 투성이로, 그 바위를 따라가면 歌島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장소의 하나인 동굴의 입구로 나온다.)

3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8.

3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7.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歌島の海女は六月七月にもつとも々いた。根據地は辨天押の東側のニワの濱である。」⁴⁰⁾
(우다지마(歌島)의 해녀는 유월과 칠월에 가장 많이 일했다. 근거지는 벤덴미사끼의 동쪽 바닷가다.)

辨天押에서 동굴이 등장하므로 신비로움이 한층 더 복돋워진다. 밀려든 물결처럼 들어 왔다가 또 빠져나가듯이 新治 동생 히로시에게 섬에서 일어나는 소문의 물결을 이곳에서 듣게 되었고, 또 소문이 물결처럼 밀려 나갈 것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다.

⑥ 데끼왕자 고분

데끼왕자 고분의 전설은 이 섬을 천사가 내려와 살았던 곳으로 신성화 시킨다. 그로 인해 섬은 왕자가 섬처녀에게 찾아와서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고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복고주의 사상을 전수코자 이와 같은 고분을 등장시켜 더욱 신비스럽고 우아한 삶을 표현하려 하였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鳥居と祠があつた。デキ王子の傳説は模湖としてゐた。デキといふその奇妙な御名さへ何語とも知れなかつた。……多分デキ王子は、知られざる土地に天降つた天使であつた。……そこでその屍は何の物語も残さずに、美しい古里の濱と八丈ヶ島を見下ろす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⁴¹⁾
(섬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고송 사이에 조그만 鳥居와 사당이 있었다. <데끼왕자>의 전설은 모호했다. 데끼라는 그 기묘한 이름마저 뜻이 분명치 않았다.…… 아마 데끼왕자는 하늘로부터 미지의 땅에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없다.……그래 그 시체는 아무 얘기도 남기지 않은 채 아름다운 古里 해안과 八丈을 내려다보는 고분에 묻혀있던 것이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とまれ古い昔にどこかの遙かな國の王子が、黄金の船に乗つてこの島に流れつい

40)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4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1.

た。王子は島の娘を娶り、死んだのちは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⁴²
 (그런 어찌됐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먼 나라의 왕자가 황금 배를 타고 이 섬에 표류
 되어 왔다. 왕자는 섬처녀와 결혼하여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 파묻힌 것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島の南のデキ王子の古墳まで行つたりする。古墳はどこからどこまでといふ境界
 がはつきりしないが、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鳥居と祠があつた。」⁴³
 (섬 남쪽 <데끼왕자> 고분까지 가기도 했다. 이 고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
 선인지 뚜렷하지 않았으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고송 사이에 조그마한
 鳥居와 사당이 있었다.)

이 섬은 천사가 내려와 살게 된 곳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 왕자가 섬처녀에
 게 찾아와서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는 아주 살기좋은 낙원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다.

여기서 복고주의 사상을 전수코자 고분을 등장시키고 있다. 또 이로써 남녀
 의 결실은 이미 맺어지게 될 것임을 예시해 주며,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때, 여주인공 初江의 꿈에 新治가 왕자로 나타나
 깨꿈 만든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주는 예시적인 신비로운 곳으
 로 이 古墳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묘지

묘지는 白骨과 魂이 묻힌 곳이다. 백골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은 정신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동양 사람들은 魂魄 가운데서 사람이 죽으
 면 魄은 지하의 땅속으로 가고, 魂은 허공을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생전에 아무리 훌륭하였고 용맹스러웠을 지라도, 또 천하고 악한 사람이었
 다 하더라도 결국 묘지의 지하에 묻히게 된다. 묘지는 우리에게 人生無常을 느
 끼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4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2.

4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1.

작품 『潮騒』에서 新治는 아버지의 묘지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도 아버지도, 또 자기의 적도 묘지에 묻혀 있음을 본다. 묘지 앞에 세워진 묘석들은 마치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의 흰 돛처럼 보였고, 그 배는 영원히 바다로 떠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墓地には冷たい朝風が吹き迷うてゐた。……夜あけの薄明のなかの墓石は、段々な港に碇泊してゐる多くの白い帆舟のやうに見える。」⁴⁴⁾
(묘지에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벽 어스름 속에 파묻힌 묘석들은 떠들썩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많은 흰 돛단배처럼 보인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父の墓の前へ來ると、母は花を活け、風に吹き消される燐寸を何本となく擦つて線香に火をつけた。」⁴⁵⁾
(아버지 묘 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꽃을 꽃고 바람에 꺼지는 성냥불을 여러개 실패한 후 향을 피웠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塚は細い小徑の奥にあり、巨きな楓と朽ちはてた梅の古木とにはさまれてゐる小さい石塔にすぎなかつた。」⁴⁶⁾
(무덤은 좁은 길 안쪽에 있는데 거대한 단풍나무와 다 썩어버린 매화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석탑에 불과했다.)

묘지는 인생의 마지막 정착역이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또는, 거룩하고 훌륭한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묘지에 묻히게 된다. 찬 북풍이 불어 차가운 새벽이 되어도, 또 태양이 내리쬐는 한 여름일지라도 묘비는 말없이 서있다. 아버지 묘앞에 어머니는 꽃을 꽃으면서 지난날의 幻影을 더듬어 보지만 슬픔만 생생하게 떠오른다. 향을 피워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역

44)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12.

45)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12.

46) 三島由紀夫, 『金閣寺』 前掲書, p. 383.

시 인간은 묘지 앞에 서면 人生無常을 느끼고 만다. 모든 인간은 한낱 초토가 되어 自然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지금까지의 空間的 자연관을 살펴 보았다.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아름다운 「歌島」섬의 등대에서 자주 만났다. 八代神社의 부적은 그들의 신변을 항상 돌보아 주었다. 觀の硝에서 그들은 사랑의 큐피트를 쏘아 맞추었다. 또 辨天押에서 남녀의 사랑의 소문은 더 퍼져 나갔으며, 데끼왕자 고분에서 시련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꿈을 통해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묘지에서 人生無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인생이란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參考文獻

- 三島由紀夫：『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新潮社,1965.
 村松剛：『三島由紀夫-その生と死』,文藝春秋社,1971.
 松本徹 編著：三島由紀夫,河出書房新社,1990.
 三好行雄(編)：『近代小説の讀み方(1)』有斐閣新書,1979.
 新潮社(編)：「三島由紀夫全集」30(評論)“私の遍歴時代”1977.
 三好行雄(編)：三島由紀夫必携,學燈社,1970.
 遠藤嘉基 外：『日本文學史』,中央圖書,1981.
 磯田光一：『殉教の美學』,冬樹社,1979.
 相原和邦(外)：『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三島由紀夫』,有精堂,1975.
 白川正芳編：『批評と研究,三島由紀夫』,芳賀書店,1974.
 解釋と鑑賞：『三島由紀夫-その豊饒と不毛』,東京:至文堂,1978.10.
 朝長ノリ 編著：日本文學論集,南榮文化社,1984.
 朴 尙均 譯：日本近代文學全集 6.『潮騒』,教育出版公社,1981.
 世界文藝大辭典(上)：成文閣,1975.
 新潮社(編)：三島由紀夫 全集 3,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27,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0,新潮社,1977.

-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1, 新潮社, 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2, 新潮社, 1977.
三島由紀夫：假面の告白, 新潮文庫, 1994.
三島由紀夫：愛の渴, 新潮文庫, 1992.
三島由紀夫：潮騒, 新潮文庫, 1986.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文庫, 1989.
三島由紀夫：花ざかりの森・憂國, 新潮文庫, 1986.
尹致富：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李善榮：문예사조사, 民音社, 1994.
N. 프라이：批評의 解剖, 한길사, 1995.

